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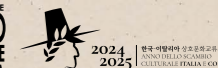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FONDAZIONE
TEATRO
COMUNALE
DI FERRARA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합작

Orlando Furioso

A. Vivaldi 광란의 오를란도

10. 11 Fri. 19:30 - 12 Sat.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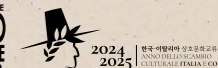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FONDAZIONE
TEATRO
COMUNALE
DI FERRARA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합작

Orlando Furioso

A. Vivaldi **광란의 오를란도**

10. 11 Fri. 19:30 - 12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합작

Orlando Furioso

A. Vivaldi **광란의 오를란도**

10. 11(금) 7:30pm - 12(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최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Opera house

주관  Daegu Opera house  TEATRO COMUNALE DI FERRARA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구광역시  대구신세계

협찬  FABER-CASTELL  COFFEE MYUNGGA SINCE 1990

Orlando Furioso

A. Vivaldi 광란의 오를란도

개요

작곡 안토니오 비발디, 1678-1741

대본 그라치오 브라치올리

원작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의 서사시 《광란의 오를란도》

배경 샤를 마뉴 대제 시대의 프랑크 왕국

초연 1727년 이탈리아 베니스 산탄젤로 극장

형식 3막

언어 이탈리아어(한글/영문자막 제공)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마르첼로 코르비노

지휘 줄리오 프란디

연출 마르코 벨루시

출연진

오를란도 C.Ten. 필리포 미네치아

알치나 Contralto 안나 보니타티부스

안젤리카 Sop. 프란체스카 롬바르디 마줄리

브라다만테 M.Sop. 로리아나 카스텔라노

루지에도 C.Ten. 다닐로 파스토레

메도로 Contralto 키아라 브루넬로

아스톨포 Bar. 줄리오 알비제 카젤리

첼발로 니콜라 라몬, 알베르토 마론

디오오케스트라

바로크성령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INFORMATION

Composer Antonio Vivaldi, 1678-1741

Librettist Grazio Braccioli

Form 3 acts

Language Italian(Korean/English Subtitle)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Marcello Corvino

Conductor Giulio Prandi

Director Marco Bellussi

CAST

Orlando C.Ten. Filippo Mineccia

Alcina Contralto Anna Bonitatibus

Angelica Sop. Francesca Lombardi Mazzulli

Bradamante M.Sop. Loriana Castellano

Ruggiero C.Ten. Danilo Pastore

Medoro Contralto Chiara Brunello

Astolfo Bar. Giulio Alvisè Caselli

Cembalo Nicola Lamon, Alberto Maron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Orchestra Barocca Accademia dello Spirito Santo

Daegu Opera Choir

Contents

목차

Greetings	04	인사말
Composer	08	작곡가 소개
Teatro Comunale di Ferrara, Italy	10	극장 소개
Synopsis	11	줄거리 소개
Exposition of Orlando Furioso	12	작품 소개
Director's Note	16	연출의 글
Characters	17	등장인물
Costume Design	18	의상디자인
Scenic Design	19	무대디자인
Creative Team	22	주요제작진
Cast	25	출연진 및 출연단체
Staff	30	제작진

대한민국 초연으로 만나는 비발디 바로크 오페라의 진수!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두 번째 메인 오페라는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과 합작으로 준비한 비발디 바로크 오페라 <광란의 오를란도>입니다. 올해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의 신규 제작 오페라를 교차하여 선보입니다. 이번 작품은 오페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연되어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광란의 오를란도>는 ‘사계’로 잘 알려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페라로, 이탈리아 페라라의 데스테 가문에서 제작한 오를란도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가미하여 르네상스 시대 문학의 집대성이자 유럽 기사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의 서사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카운터테너와 콘트라alto 등의 음역대를 가진 성악가들이 출연하여 바로크 오페라 특유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년을 지나, 새로운 오페라 시대로 나아가는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연에 함께 해주신 출연진, 제작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한 발걸음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최고의 오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Premiere in South Korea : The Essence of Baroque Opera by Vivaldi

Director of Daegu Opera House Jeong Gap-kyun

The second main opera of the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is Baroque opera Orlando Furioso by Vivaldi, prepared in collaboration with the Teatro Comunale di Ferrara in Italy. This year marks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Italy, and we are proud to present a new production of this opera, showcasing the artistic collaboration between the Daegu Opera House and the Teatro Comunale di Ferrara. Thanks to the support and interest from opera-loving citizens, this production will be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elevating the status of Daegu, a UNESCO City of Music.

Orlando Furioso is an opera by Antonio Vivaldi, the composer well-known for The Four Seasons. This work incorporates the life and love stories of Orlando, produced by the Este family in Ferrara, and is based on the epic poem by the poet Ludovico Ariosto, which is regarded as a pinnacle of Renaissance literature and a masterpiece of European chivalric literature. Notably, this production will feature singers with vocal ranges including countertenors and contraltos, providing a wonderful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unique beauty and charm of Baroque opera music.

As we move into a new era of opera beyond maturity, I wish great success for the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performers, production team, and all involved in this event, and I hope that this performance will be a memorable experience for our esteemed audience.

Thank you.

비발디 오페라를 만나는 시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의 ‘광란의 오를란도’를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극장장 마르첼로 코르비노



페라라는 루도비코 아리오스토가 서양 문학 역사상 첫 번째 위대한 소설 광란의 오를란도를 쓴 도시입니다. 이 서사적 기사가 낭만주의부터 현재까지 문학 역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에서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까지 아리오스토의 걸작이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를란도의 서사, 마녀 알치나, 그리고 에스텐세 왕조를 일으킨 브라다만테와 루지에로의 이야기는 당시 작곡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 예로 헨델의 알치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페라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보석과도 같은 도시로, 여전히 광란의 오를란도가 탄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에서 페라라의 아도바 극장을 바라보면, 1300년대 후반 막강했던 에스테 가문에 의해 지어진 건축 보물인 카스텔로 에스텐세가 보입니다. 1476년부터 1597년까지 이곳은 페라라 궁정의 본거지였으며, 그 해에 페라라가 교황령으로 넘어가면서 에스테 가문은 모데나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창문의 왼쪽을 보면 1478년에 에르콜레 1세 에스테의 아내인 엘레오노라 다라곤의 요청으로 지어진 '정원과 오렌지 나무의 로지아'가 보입니다. 이 정원은 시적인 오렌지 나무들이 있는 멋진 테라스이며,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의 탑과 해자 사이에 떠 있는 건축적 섬으로, 아리오스토에게 알치나의 섬을 떠올릴 수 있게 영감을 준 시적 아름다움의 장소입니다. 오렌지 정원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12세기부터 지어진 훌륭한 로마네스크 대성당이 보입니다.

이 성당은 광장을 내려다보며, 마찌니 길로 이어지며 아리오스테아 도서관에 이릅니다. 이곳은 르네상스 문화의 중요한 장소로, 1516년의 광란의 오를란도 원고와 1532년의 최종 판본까지 모든 초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는 페라라 출신의 법학자 그라치오 브라치올리의 대본들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스테 도시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1700년대 전반에 가장 중요한 베네치아 극장을 위해 오페라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광란의 오를란도의 대본은 실제로 볼로냐 작곡가 조반니 리스토리의 작품으로, 1713년 베네치아의 산탄젤로 극장에서 상연되었습니다. 이듬해 안토니오 비발디가 베네치아 극장의 제작자가 되어 같은 대본으로 오를란도 핀토 파초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1727년 비발디는 다시 한 번 페라라의 법학자 그라치오 브라치올리의 대본을 사용하여 그의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전 세계의 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공연되고 있으며, 이번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됩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있어 대구오페라 하우스에 감사드립니다.

Time to Experience Vivaldi Opera! Introducing opera <Orlando Furioso> by Teatro Comunale di Ferrara.

General Director of the Ferrara Teatro Comunale Foundation Marcello Corvino

Ferrara is the city where Ludovico Ariosto wrote the first great novel in the history of Western literature Orlando Furioso, an epic chivalric poem that has influenced the history of literatur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In the pages of Cervantes' Don Quixote to Lord of the Rings and Harry Potter, one can read an obvious influence of Ariosto's masterpiece. The epic of Orlando, the sorceress Alcina, and Bradamante and Ruggiero, who gave rise to the Estense dynasty, was a huge success among the composers of the time, all the way through the eighteenth century, one example for all being Haendel's Alcina. In Ferrara, an urban Renaissance jewel now a Unesco heritage site, it is still possible to breathe in that atmosphere that gave birth to Orlando Furioso. Looking out of my office window at Ferrara's Teatro Abbado, I see before me the Castello Estense an architectural jewel built by the powerful Este family in the late 1300s and which from 1476 became home to the entire court until 1597, when Ferrara passed to the Papal States and the Este family moved their capital to Modena. From my window turning my gaze to the left I see "The Garden and Loggia of the Orange Trees," built in 1478 at the behest of Eleonora d'Aragona wife of Ercole I d'Este. The garden is a marvelous terrace that is home to poetic orange trees, unusual trees for these latitudes, an architectural island suspended between the castle towers and the water of the moat, a locus amoenus of poetic beauty that inspired Ludovico Ariosto with the idea of Alcina's Island, the place where Antonio Vivaldi's melodrama Orlando Furioso is set. From the Garden of Oranges looking to the right is the marvelous Romanesque cathedral, a jewel that was built from the 12th century onward and overlooks the square from which Via Mazzini starts, along which you reach the Ariostea Library, a fundamental place of Renaissance culture. Valuable manuscripts are kept here, including that of Orlando Furioso from 1516 and all the first printed editions up to the final edition of 1532. Also kept in the same building are the librettos of Grazio Braccioli, a jurist from Ferrara, a professor at the prestigious university of the Estense city who in the first half of the 1700s wrote opera librettos for the most important Venetian theaters and for the major composers of the time. The libretto of Orlando Furioso was actually written for the Bolognese composer Giovanni Ristori, who staged it in 1713 for the Teatro Sant' Angelo in Venice. The following year Antonio Vivaldi became impresario of the Venetian theater and on the same libretto composed the music of the Orlando Finto Pazzo. In 1727 Vivaldi once again took up the libretto by the Ferrarese jurist Grazio Braccioli to bring to life one of his greatest masterpieces, which is still a success in theaters all over the World and for the first time comes to South Korea in the prestigious Daegu Opera Festival, which we thank for this prestigious collaboration.

안토니오 비발디 1678-1741

Antonio Vivaldi

안토니오 비발디 Antonio Vivaldi(1678-1741)는 베네치아 성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리니스트 조반니 비발디와 카밀라 갈리치오 사이에서 칠삭둥이로 태어났다. 허약했지만 그에게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말아들의 재능을 알아차리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자신의 상사였던 산마르코 성당의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인 조반니 레그렌치에게 음악을 배우도록 했다.

하지만 9남매를 돌보기 힘들었던 아버지는 비발디가 가톨릭 사제가 되기를 바라며 15살의 그를 올레오 수도원에 입회시켰다.

천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사제 본연의 업무를 힘들어하던 비발디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본격 발휘하기 위해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베네치아의 소녀 고아원 중 하나인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의 바이올린 교사로 임명되었다. 비발디

의 공식 직책은 사제였지만 음악 활동과 작곡에 심혈을 기울이며 모든 악기를 총괄하고 합창의 지휘와 감독까지 하게 되었다. 부단한 비발디의 노력은 피에타 학교의 음악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비발디는 학교 합창단과 연주자들의 공연을 위해 많은 곡을 작곡하고, 대중을 위해 기교적으로 어렵고 기법적으로 대담한 곡도 작곡하면서 일취월장의 실력을 쌓아갔다. 그리고 빠른 작곡 속도로 유명했던 비발디는 당시 저작권이 없고, 정형화된 작곡법을 통해 훨씬 많은 곡을 빠르게 만들어냈다. 한편,



교황청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붉은 머리 사제' 비발디에게 성직 집무권을 박탈했으나 오히려 비발디의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지지한 것으로 보여졌다. 1710년부터 사실상 전업 작곡가가 되었지만 1733년까지는 교직에 몸담고 있었다.

비발디에게 베네치아는 생활의 중심이었고, 종종 가족이나 학생들과 연주 여행을 떠나기는 했었다. 작곡가로 승승장구하며 인정 받은 비발디는 본격적으로 오페라 작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1713년 자신의 첫 오페라 <오토네>를 상연하며 1714년에는 '산탄젤로 극장'의 감독이 되어 작곡뿐만 아니라 오페라의 공연과 흥행까지 맡게 되었다. 오페라 작곡가로 가능성을 보인 비발디는 이탈리아 전역에 명성을 떨치며 그의 오페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되었다. 그러던 1718년 40살이 되던 해부터 1725년까지는 만토바의 궁정악장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베네치아와 만토바를 오가며 생활하던 중 그의 대표작인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를 탄생시켰다.

1730년대 후반까지 활발하게 오페라 작곡을 이어오던 비발디는 갑작스레 몰락하게 된다. 1737년 비발디의 작품집을 위작 출판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여전히 높았지만, 산탄젤로 극장의 흥행 감독직을 다시 역임하며 작품 선정과 공연 일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 문제 되었다. 결국 비발디는 베네치아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다른 지역 오페라 공연을 추진하던 와중 '페라라'를 눈여겨 보고 그곳에서 자신의 오페라 <파르나체>를 공연하고 싶어 전 재산을 투자하고 성사를 요청했으나 물거품이 되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투자 실패로 경제적 궁핍에 허덕이던 비발디는 자신의 열렬한 팬이었던 카를6세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옮겨갔지만, 카를6세는 병 악화로 죽음을 맞이하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며 비발디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실의에 빠진 비발디는 결국 지병이었던 천식으로 향년 63세에 빈에서 삶을 마감한다. 유럽 전역에서 음악적 능력을 바탕으로 유명세를 날리던 작곡가 비발디의 죽음 이후, 그의 진가를 인정 받기까지 200여 년이 걸렸고, 20세기 초 바흐에 의해 비발디 협주곡이 건반악기 등으로 편곡된 편곡집이 발견됨으로써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Teatro Comunale di Ferrara, Italy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페라라시에 위치하였으며, 1798년에 건립된 유서 깊은 극장이다. 객석 규모는 990석으로 전통적인 이탈리아 극장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완공된 그해 9월 연극 공연으로 초연되었다. 오페라 작품으로는 1812년 3월 로시니 작품 <바벨론의 사이러스(Ciro in Babilonia)>가 초연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 Claudio Abbado(1933-2014)가 생전에 이 극장에서 여러 작품들을 지휘한 적이 있는데, 그가 죽고 난 뒤 그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클라우디오 아바도 시립극장'이라고도 불린다. 현재는 오페라, 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작품을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



1막

안젤리카는 오를란도에게 쫓기다 마녀 알치나의 궁전으로 도망간다. 그녀는 알치나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메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알치나는 아스톨포와 오를란도가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한 후, 오를란도를 유혹하려 하지만 오를란도는 안젤리카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러자 알치나는 안젤리카가 자기와 함께 있다고 말하며 그를 초대한다.

아스톨포는 오를란도에게 알치나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며,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던 중 브라다만테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 자신의 약혼자인 루지에로를 찾아온다

안젤리카는 폭풍우 속에서 메도로를 구하고, 알치나는 그런 그를 돌본다. 오를란도가 질투에 눈이 멀어 메도로를 죽이려 하지만, 알치나는 그가 안젤리카의 오빠라고 믿게 만든다.

루지에로는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알치나의 정원에 도착하고, 그는 마법에 걸려 알치나에게 홀리게 된다. 브라다만테는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하지만, 루지에로는 마법에 걸려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2막

알치나는 아스톨포와 단둘이 있다. 아스톨포는 알치나를 사랑하지만, 알치나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다 혼자 남은 아스톨포는 브라다만테에게 마녀 알치나에 대한 그의 약한 모습을 비난한다. 아스톨포는 루지에로에게 자신이 약속으로 받은 반지를 주자 마법이 풀리고, 루지에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루지에로를 용서하지 않고, 그에게 마법 반지를 사용해 알치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라고 한다.

안젤리카는 오를란도를 유혹하여 그를 속여 죽이려 한다. 아침에 빠진 오를란도는 영원한 젊음의 물을 지키는 아수에게 도전하기로 하고, 흥분한 그는 괴물을 소환하지만 결국 알치나의 감옥에 갇힌다. 안젤리카의 배신에 상처받은 오를란도는 간신히 탈출한다. 한편, 브라다만테와 루지에로는 만나 화해하고, 안젤리카와 메도로는 알치나의 축복 속에 결혼한다. 그 후 오를란도가 도착해 결혼 사실을 알고 깊은 절망에 빠진다.

3막

아스톨포는 오를란도가 죽었다고 믿고, 루지에로에게 그의 장례 치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알치나가 거절한 것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루지에로는 기사로 변장한 브라다만테와 함께하고, 알치나는 루지에로의 무관심에 분노한다. 그녀는 마법사 멀린의 영혼을 소환하고 헤카테의 신전의 철벽을 열라고 명령한다. 오를란도는 광기에 휩싸여 망상에 빠져 멀린의 동상을 안젤리카로 착각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수호자 아론트를 죽인다. 그는 동상을 안고 들어올리며 대지진을 일으켜 신전을 무너뜨린다. 마법이 풀리고 섬은 황폐해지며, 힘을 잃은 알치나는 지친 오를란도를 죽이려 하지만, 루지에로와 브라다만테가 제때 그를 막는다. 아스톨포는 군인과 함께 불타는 햇불을 들고 나타난다. 그것은 '오를란도 정신의 잃어버린 빛'이다. 기사들은 팔라딘을 깨우고 그가 불꽃을 보자 정신을 되찾는다. 그는 안젤리카를 용서하고 그녀와 메도로의 사랑을 축복한다.

6개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광란의 오를란도>

음악평론가 송 현 민

오를란도는 프랑크 왕국 샤르마뉴 대제의 조카이며 엘리트 기사이다. 하지만 안젤리카를 향한 사랑에 대한 좌절로 이성을 잃고, 본분도 잊은 채 세상을 떠돈다. 그러던 중 동료 기사이자 사촌인 아스톨포는 신의 계획에 따라 오를란도의 잃어버린 이성이 담긴 호리병을 찾아내고, 오를란도는 이성을 되찾게 되며 완벽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랑에 미쳐 정신을 놓은 남자, 잃어버린 정신이 담긴 호리병과 신의 계획, 그리고 이 병에 담긴 이성으로 정신을 되찾는다는 이야기. 참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요소들이 녹아 있다. 인간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랑과 아픔은 당대의 리얼리티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역시 당대의 리얼리즘이었다.

01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문장’은?

하지만 제목이 ‘광란의 오를란도’인 것처럼, 우리가 이 작품에서 목격해야 할 것은 이성이 삐끗할 때마다 펼쳐지는 광란과 혼란의 순간이다. 오죽하면 원작의 명문장으로 남은 것이 “인간의 판단은 이처럼 자주 오류를 범하는구나!”라는 문장일까? 이는 오를란도가 그간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온 안젤리카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허망하게 잃게 되자,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탄식하는 대목이다. 또한 원작의 작가는 자신이 펼쳐놓은 줄거리를 수놓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이렇게 한탄하기도 한다. “오 신이시여! 어찌하여 인간의 판단력은 이처럼 자주 어두운 먹구름에 의해 흐려지나이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 광란과 혼란은 이야기의 흐름을 채찍질하는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뒤엎킨 실타래를 풀었을 때 다시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카타르시스에 도달하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오페라를 보는 이유다.

02 ‘비발디’는 오페라 작곡가가 맞을까?

<광란의 오를란도>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가 작곡해 1727년 베니스 산탄젤로 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우리에게 비발디란 누구인가?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아파트 단지나 호텔, 스키장이 생길 정도로 그는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 이고, 이러한 친숙함은 그의 대표적인 기악곡 <사계>로부터 온다.

하지만 생전의 비발디는 자신을 기악 음악의 작곡가뿐만 아니라 오페라 작곡가로도 여겼다고 한다. 그런 그가 만년으로 향하면서 남긴 오페라는 약 90곡. 비발디는 이러한 개수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 더불어 전막의 오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오페라 아리아가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퍼져나갔다고 하니, 그의 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악으로만 국한되지 않았고, 성악 예술을 통해서도 널리 퍼졌다고 할 수 있겠다.

비발디의 첫 오페라는 1713년 작 <오토 황제의 빌라>로 기록된다. 베니스 공화국의 도시 중 하나인 비첸차에서 초연되었고, 이듬해인 1714년에 산탄젤로 극장의 중책을 맡았던 비발디는 오라토리오 <모이세스 데우스 파라오니스>를 발표했다.

성악 작품에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비발디는 같은 해인 1714년, 보이아르도가 15세기에 출판한 <사랑에 빠진 오를란도>를 그라치오 브라치올리가 각색한 대본에 음악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를란도 핀토 파초>였다. 이 작품은 2016년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서울 LG아트센터에서 선보였는데, 당시에도 ‘비발디의 오페라’를 낯설어하는 이들이 많았다.

03 오를란도도, 작곡가도 ‘광기’에 사로잡혔다!

<광란의 오를란도>는 상기한 <오를란도 핀토 파초>로부터 14년 뒤의 작품이다. 만년으로 향할수록 작곡 기법이 진화했던 비발디는 <광란의 오를란도>에 불안과 광기의 에너지를 더욱 농밀하게 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란의 에너지와 이를 입은 에너지는 오페라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질까?

오페라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매드신(mad scene)’이라 불리는 ‘광란의 장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광란의 장면은 오페라 역사상 중요한 현상 중 하나다. 주인공은 광란의 상태에서 인간 내면의 심리를 환상적이거나 초현실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음악적으로는 현실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교묘하고 기괴한 소리와 성악적 기교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즉 어려운 트릴(음과 음을 교대로 빨리 연주하는 것)은 물론 아찔하게 느껴질 고음을 구사하는가 하면, 다양한 콜로라투라(기교적으로 장식된 선율)의 기교들을 펼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관객들은 광란의 주인공을 기다렸고, 성악가들은 이를 심분 활용해 자신의 기교를 자랑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악기들 역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래서 비발디는 <광란의 오를란도>의 화성 진행의 측면에서 무척이나 대범하고 예측 불가하며, 악기 편성도 몇 개의 악기로 편성된 바소 콘티누오 형태가 아닌 대형 오케스트라 반주를 동반하는 형태로 진화시켰다.

04 기사는 남성인데, 왜 ‘여성’ 목소리로 부를까?

<광란의 오를란도>에서 주인공 오를란도와 그의 수행 기사 루지에는 남성 캐릭터이지만, 오늘날 그 역할은 카운터테너가 맡는다. ‘카운터테너’는 알토나 메조소프라노 같은 여성의 음역을 노래하는 남성 성악가를 지칭한다. 중세 이후 가톨릭교회에서는 여성이 노래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여성의 목소리를 ‘카스트라토’가 대신하게 됐다. 카스트라토는 변성기 이전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거세한 남성 성악가로, 특히 17~18세기 오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19세기에 거세라는 비인간적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카스트라토는 점차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서 과거에 카스트라토가 맡던 역할을 같은 음역대인 알토나 메조소프라노가 맡게 되었다. 이는 여자가 남장, 즉 바지를 입고 남자 역을 한다고 해서 흔히 '바지 역할'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 역할을 맡으면서 오는 이상함은 카스트라토의 존재를 대신할 카운터테너들을 호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카스트라토를 대체할 카운터테너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래도 남성이 여성의 목소리를 내며 노래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오페라 작품이 오르고 성악가들이 활동하는 유럽에 비해 아직 국내에서는 낯설다. 하지만 철학자 질 들뢰즈(1925~1995)는 저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에서 “바로크 예술의 미학은 여러 주름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면이 드러나고, 또 여러 주름이 잡히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광란의 오를란도>는 우리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성악가들의 여러 음색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크 오페라라 할 수 있겠다.

05 어떤 ‘아리아’를 귀담아들어야 할까?

무엇보다 <광란의 오를란도>는 낯선 작품이지만, 안에는 음악 애호가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 아리아가 흐른다. 그중 <오직 당신만이 달콤한 내 사랑>(Sol da te, mio dolce amore)은 루지오가 여전사 브라다만테가 보는 앞에서 여자 마법사 알치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다. 사랑의 맹세는 아름답지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마법 위에 세워진 불안 같다는 내용으로 서정적인 노래다.

또 다른 아리아는 오를란도가 부르는 <저 깊은 어둠의 세상 속으로>(Nel Profondo)이다. 빠르고 낭창하게 흐르기에 가사 내용을 모른다면 기쁨에 들뜬 노래처럼 들리지만, 실제 내용은 오를란도가 연인 안젤리카에 대한 불안감을 담고 있다.

오페라는 여러 노래로 구성된 예술이지만, 단 몇 곡의 ‘아리아’가 작품의 명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속된 작은 노래가 장편의 명성을 대변하는 것은 오페라뿐만 아니다. 일례로 3시간에 달하는 바흐의 <마태수난곡>도 7분 분량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Erbarme dich mein Gott)로 이 대곡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광란의 오를란도>도 ‘오페라’로는 자주 오르진 않지만, 앞서 거론한 두 아리아는 메조소프라노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음반을 녹음하거나, 중요한 무대에서 부르는 베스트 아리아이다.

06 대구에서 ‘한국 초연작’을 만난다는 의미는?

올해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서거 100주년이라 그의 대작들이 많이 오른다. 더불어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해로 이탈리아의 음악 유산들이 한국 무대에 자주 오른다. 서울에 이어 오페라하우스를 보유한 유일 도시 대구도 이러한 교류에 동참해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과 합작으로 <광란의 오를란도>를 선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몇 개월 전에 호평받은 작품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곧이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란의 오를란도>는 중세의 시간을 머금은 도시 ‘페라라’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 오페라의 원작을 지은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1474~1533)가 페라라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페라라 일대를 지배했던 에스테 가문의 가신을 지냈으며, 아리오스토는 비밀리에 결혼한 알레산드라 베누치와 함께 페라라에 머물며 시 창작과 정원 가꾸기로 만년을 보냈다. 페라라는 이러한 아리오스토의 여러 흔적을 오늘날에도 부지런히 기념하고 있다.

올해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에 마르코 벨루시의 연출로 이 작품이 올랐을 때 현지에서 여러 호평이 쏟아졌다. 유럽의 유명 오페라극장의 신작과 문제작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오페라 와이어>지는 “명확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깔끔한 공연이었다”라며 연출 방식에 호평했다. “특히 마르코 벨루시(연출가)는 주요 초점을 오를란도뿐만 아니라 알치나로 옮겼다. 작품 속에서 사건의 원동력인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등장인물들이 빠져드는 혼란한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를 위해 무대미술가는 벽과 천장이 거울로 된 무대를 만들어 이미지가 서로 반사되면서 혼란스러운 현실을 만들었다.”

바로크와 비발디 시기의 오페라는 당대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놀라운 가공물이었다. 그 뒤에 나폴리 출신이거나 나폴리에서 공부한, 이른바 나폴리 작곡가들에게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주기 전까지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오페라계를 장악한 오페라들 너머로 우리가 몰랐던 오페라의 또 다른 전형을 <광란의 오를란도>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은 바로크 시기를 장악했던 음악적 기법들과 유행의 집합체였다는 것도 잊지 말자.

“광란의 오를란도”를 다룬다는 것은 여러 내러티브¹⁾로 얽힌 특별한 텍스트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내러티브는 자율적이지만 모두가 얽혀 단일한 구조를 만듭니다. 따라서 다양한 설정이 탄생합니다. 작품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주인공 알치나와 관련된 명확한 공간, 닫힌 차원. 그녀의 궁전에서 그라치오 브라치올리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사건들이 안토니오 비발디의 음악을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정의된 궁전 안에 있지만, 그 경계는 불확실합니다. 마법의 왜곡이 이 경계를 확장하고 왜곡하여 단일한 관점의 확실성을 제거합니다.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대한 바로크적 긴장감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부각됩니다. 드라마의 왜곡된 역학을 표현하기 위해 강력한 요소인 거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테오 파올레티 프란자토의 디자인에서 궁전의 벽은 거울이며, 천장 역시 거울입니다. 이는 궁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현실일 수도 있고, 그 현실을 왜곡하여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작은 사회는 불안정한 다수의 모호한 관점에 반응하여 행동하고, 각자 자신의 욕망에 따라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코미디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르코 벨루시

Director's Statement

Facing the dramaturgy of Orlando Furiosomeans grappling with a text of extraordinary complexity, articulated in multiple narrative threads; each of them is autonomous yet all intertwine, creating a single architectural structure. Thus, the setting is born: a defined space, a closed dimension that pertains to the charismatic protagonist of the work. Not Orlando, but Alcina, the sorceress.

In her palace, the intricate events outlined by Grazio Braccioli based on Ariosto's text are marvelously expressed through the music of Antonio Vivaldi. We find ourselves in a palace with defined but uncertain perimeters. It is the mystification of magic that expands and distorts them, removing the certainty of a single perspective.

The baroque tension of awe and wonder benefits from these mechanisms. The direction aligns with the distorting dynamics of the drama and therefore decides to focus on one powerful element: the mir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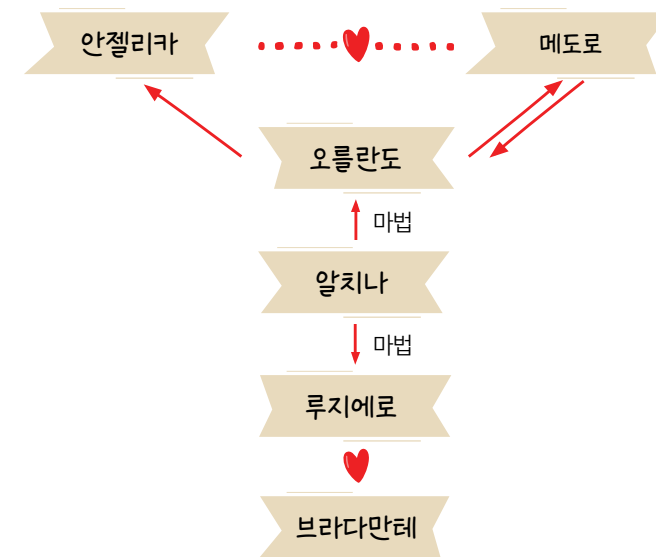
In Matteo Paoletti Franzato's design, the walls of the palace are mirrors. The ceiling of the palace is also a mirror. This means that everything that happens within it can be reality or a distorted reflection of the same.

It occurs that the small society of our characters acts and reacts in reflection to the influences of a destabilizing multiplicity of ambiguous perspectives, giving life to a comedy in which all, more or less consciously, are driven by their passions in a condition of insecurity and transience.

Marco Bellussi

1) 내러티브 : 정해진 시공간 내에서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 허구 또는 실제 사건들의 연속

- 오를란도** 안젤리카를 열혈 짝사랑하는 무적의 기사이다. 안젤리카가 메도로(남)를 구해주는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광기에 빠지기도 한다. 안젤리카는 그런 오를란도가 부담스러워 그에게 묘약을 갖다 달라며 위험한 동굴로 보낸다. 그러나 이 모든 술수에 배신을 느낀 오를란도는 더욱 깊은 광기를 갖게 되고 이후 살아 돌아와 안젤리카를 죽이려 하지만, 이성을 되찾아 안젤리카와 메도로의 사랑을 축복한다.
- 알치나** 여자 마법사로 남성들을 매혹하고 조종한다. 오를란도도 그중 한 명이었지만, 그는 안젤리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후 알치나는 마법으로 루지어로(남)가 브라다만테(여)를 잊게 만들어 알치나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후반에 알치나의 마법은 광기에 빠진 오를란도에 의해 그녀의 신전이 무너뜨려짐으로써 힘을 잃게 된다.
- 안젤리카** 많은 이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매력과 반항의 양면성을 지닌 아름다운 공주이다. 그녀가 사랑하는 메도로(남) 때문에 오를란도는 화가 나지만, 알치나는 메도로가 안젤리카의 남동생이라 믿게 만들어 삼각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알치나의 축복 아래 안젤리카와 메도로는 결혼하며 오를란도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지만, 이성의 햇살을 통해 오를란도는 정신을 되찾고, 그들을 축복한다.
- 메도로** 안젤리카의 마음을 사로잡는 양치기. 혼란 속에서도 순수함과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인물이다.
- 브라다만테**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여전사로, 루지어로의 아내이다. 루지어로는 알치나의 마법에 빠지고, 브라다만테는 배신감에 사로잡히지만, 루지어를 마법으로부터 깨어나게 한다. 루지어로와 함께 알치나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알치나가 괴력이 없어진 오를란도를 죽이려고 할 때, 브라다만테와 루지어로가 힘을 합쳐 이를 저지한다.
- 루지어로** 마법사 알치나의 마법으로 그녀에게 매료되지만, 브라다만테의 힘과 결단력으로 마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알치나
Alcina



안젤리카
Angelica



아스톨포
Astolfo



브라다만테
Bradamante



메도로
Medoro



오를란도
Orlando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 **마르첼로 코르비노** Marcello Corvino

- DAMS 음악 전공, Conservatorio “U. Giordano”에서 바이올린 학위 취득
- Foggia Conservatory에서 음악 교육 및 역사 강의, 문화 이벤트 프로모션 회사인 Promo Music 설립. 유럽 주요 극장에서 Haendel 및 Vivaldi 오페라 현대 공연 기획
- Teatro Comunale di Bologna 이사회 위원, Teatro Astra di Bellaria Igea Marina 예술 감독 역임.
- 비발디의 <Catone in Utica>,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리아>,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등 다수 작품 지휘
- 현) Teatro Comunale Claudio Abbado di Ferrara 예술 감독으로 재직, 다수의 원작 제작 및 국제 공연 진행



지휘 Conductor | **줄리오 프란디** Giulio Prandi

-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 지휘 전공. ISSM Vittadini 성악 및 수학적 전공
- 2003 기슬리에리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창립
-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밀라노 라 스칼라, 베를린 필하모니, 브뤼셀 보자르 등 다양한 극장 지휘자 활동
- 현) 기슬리에리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 유럽 주요 축제 및 콘서트 참여



연출 Director | **마르코 벨루시** Marco Bellussi

-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불행한 여인들의 무용>, 퍼셀 <디도와 에네아스>, 헨델 <타메를란, 에스테르>, 비발디 <파르나체>, 글루크 <알체스테>, 모차르트 <다폰티 삼부작>, <마술피리>,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스트라우스 <박쥐>, 코르사코프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푸치니 <나비부인>, <토스카> 등 다수 오페라 제작
- 테아트로 라 페니체, 테아트로 골도니, 비첸차의 올림피코 극장 등 주요 극장에서 프로덕션 제작
- 2010년부터 비아토르 출판 그룹과 협력하며, 여러 출판물 기획 및 총괄



무대미술감독 Set Design | **마테오 파올레티** Matteo Paoletti

- 베네치아 미술 아카데미 장식/무대 기술 전공
- 안토니아 사우터 크리에이션 및 이벤트에서 장식가 및 창작 스케처, 베로나 오페라 리리카 마스터 프로그램 참여 및 다양한 국내외 제작에 참여
- 마리오 델 모나코 극장에서 조반니 만쿠소 신작 오페라 아틀라스 101의 세트 및 의상 제작
- 제10회 유럽 오페라 연출상에서 지아코모 푸치니의 마농레스카프로젝트로 2위, 비엔날레 콜레지 테아트로의 최종 진출 등 다양한 수상 경력



의상감독 Costume Design | **엘리사 코벨로** Elisa Cobello

- Liceo Classico 졸업. 베네치아 미술 아카데미 그래픽 아트 전공. 스칼라 아카데미 Sarti dello Spettacolo 과정 수료.
- 로마 오페라 극장에서 Fabbrica 프로젝트의 의상 디자이너 활동, 로마의 Teatro Nazionale에서 <Acquaprofonda> 의상 디자인, 본 벨칸토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Otello> 의상 디자인 및 Ferrara의 Teatro Comunale에서 <Catone in Utica> 의상 디자인



조명감독 Lighting Design | **마르코 카졸라** Marco Cazzola

- 1991년부터 페라라의 코무날레 극장에서 무대 기술자, 프로즈, 오페라, 무용 등 다양한 공연 활동에 협력하며 에스테 주의 여름 축제와 이벤트에 참여
- 차르트 코지 판 투떼에서 무대 조명 기술자, G.F. 헨델 줄리오 체사레의 조명 디자이너,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글록의 알체스테, 헨델의 에스터밋 아키스와 갈라테아등 제작
- 현) 페라라 코무날레 극장 재단의 조명 책임자 및 조명 디자이너



영상감독 Video design | **파비오 마시모 라쿠오네** Fabio Massimo Laquone

- 로마 Centro sperimentale di Cinematografia 졸업
- 로마대학교 La Sapienza foreign languages and cultures 학위 취득
- Robert Wilson, Prometeo, Giorgio Armani, Lucio Dalla, Katia and Marielle Labeque, Victoria Mullova, Alfredo Arias, Marco Bellussi 등 다양한 연출가와의 영상 협업
- 현) 로마 University La Sapienza 멀티 미디어 디자인 강사



오를란도 C.Ten. Orlando C.Ten. | **필리포 미네치아** Filippo Mineccia

- 피에솔레 음악학교 성악 전공, 피렌체 루이지 체루비니 음악원 성악과 첼로 전공
- 최근 라 스칼라 극장 <Zite 'ngale> 티타 카스타냐 역 데뷔
- <줄리오 체사레> 톨로메오, <아그리피나> 오토네, <시로에> 메다르세, <베레니체> 데메트리오, <루치오 코르넬리오 실라> 주역, <가울라의 아마디지> 다르다노역 등 다수 헨델 작품 출연
- <Il primo omicidio> 카이노, <포페아의 대관식> 오토네, <광란의 오를란도> 루지에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주역, <La Finta pazza> 아킬레, <Merope> 아나산드로역등 다양한 작품 출연
- 아리오스티, 빈치, 요멜리, 가스파리니, 하세)의 작품으로 12개의 솔로 앨범 발매



알치나 Contralto Alcina Contralto | **안나 보니타티부스** Anna Bonitatibus

-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프란체스코 카발리, 조지 프리드리히 헨델, 조아키노 로시니, 주세페 베르디, 가에타노 도니제티등 다양한 작품을 포함한 70편 이상의 오페라 공연
- <돈조반니>, <코지 판 투떼>, <카르멘> <로미오와 줄리엣>, <호프만의 이야기>, <베르테르>, <아그리피나>, <오를란도>, <오토네>, <세빌리아의 이발사>,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랭스여행>, <탄크레디>, <돈키호테>, <티토 황제의 자비>등 다수 작품 출연
- 라스칼라 극장, 마드리드 왕립 극장,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 오페라 다수 출연, 뮌헨 국립극장 <아그리피나> 데뷔, 2021년 함부르크 국립 극장 <아그리피나> 데뷔.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등 여러 작품 출연, 브뤼셀 라모네 극장 <티토의 자비> 등 다수 작품 출연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액상프로방스 페스티벌,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등 다수 페스티벌 참여
- 2023년 헨델 프라이즈 수상
- 콘소르나테 - Vox in Musica 설립 및 운영
- 활발한 음반 및 리사이틀 활동



안젤리카 Sop. Angelica Sop. | **프란체스카 마줄리** Francesca Mazzulli

- 밀라노 주립 음악원 학위 취득, 페라라 음악원 석사 학위 취득(사사 미렐라 프레니, 루치아노 파바로티)
- 헨델 성악 콩쿠르 런던 결선 진출, 비라지딘 고전 음악 페스티벌 비평가상 수상, 나폴리 피에타 데이 투르키니 콩쿠르 2등
- 헨델 <줄리오 체사레> 클레오파트라, <알치나> 오베르토역, <시간과 환멸의 승리>, 비발디 <오를란도 핀토 파초> 에르셀리아, <파르나체>, <아시스>, <갈라테아> 등 바로크 음악 작품 다수 출연
- 글로사, 베를린 클래식, DHM, 소니 인터네셔널 등 다수 음반사와의 음반 활동



브라다만테 M.Sop. Bradamante M.Sop. | **로리아나 카스텔라노** Loriana Castellano

- 레체 음악원 성악 전공
- 64회 스폴레토 콩쿠르 우승, 토티 달 몬테 콩쿠르 우승 및 다수 국제 경연 대회 수상
- 2013 카디프 세계 가수 대회 이탈리아 대표
- <피가로의 결혼> 체루비노, <알치나> 브라다만테, <유디타 트리움판스>, <코지판투테> 도라벨라, <파르나체> 셀린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로지나, <리날도> 알미네라, <카르멘> 메르세데스, <광란의 오를란도> 브라다만테 등 다수 오페라 출연



루지어로 C.Ten. Ruggiero C.Ten. | **다닐로 파스토레** Danilo Pastore

- 주세페 베르디 음악원 수석 졸업. 로렌조 페로시 고등 예술 및 음악 교육원 석사
- 그는 도쿄의 오케스트라 리베라 클래식, 루가노의 "I Barocchisti", 파리의 "Ensemble Pygmalion" 등과 함께 다양한 콘서트 활동
- 테아트로 자코모 푸치니, 테아트로 알리기에리, 테아트로 베르디, 테아트로 소시알레 등 다수 극장 활동
- 스트라디바리우스, 아르카나/Outthere Music 등 여러 레이블을 위해 녹음
- 비발디, 푸치니, 모차르트, 몬테베르디 등의 오페라 주요 역할
- 현) Istituto Musicale pareggiate "A, Peri" 호른 과정 강사 재직



메도로 Contralto Medoro Contralto | **키아라 브루넬로** Chiara Brunello

- 로비고 음악원 졸업, 베네치아 음악원 바로크 음악 전공.
- <헨젤과 그레텔>,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라 체키나>, <파르나체>, <올림피아데>, <광란의 오를란도> 등 다수의 오페라 출연.
- 트레비소 시립극장, 베르가모 도니제티 극장, 제네바 오페라 극장, 모나코 극장, 페라라 아바도 극장 등 여러 오페라 극장 활동.
- 트라파니 여름 음악제, 로시니 페스티벌, 사르부르크 페스티벌, 페르골레시 스포티비 페스티벌 등 다수 페스티벌 참여



아스톨포 Bar. Astolfo Bar. | **줄리오 알비제 카젤리** Giulio Alvisè Caselli

- 페라라 음악원 바이올린 전공, 페라라 대학교 및 라티스본 대학교 독일어 및 영문학 전공, 뮌헨 음악 및 연극 학교 성악 학위 취득.
- 토티 달 몬테 콩쿠르 결선 진출. 도르트문트, 린츠, 아우크스부르크, 잘츠부르크, 아헨 등 극장 솔리스트.
-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 <마술피리> 파파게노, <돈 조반니> 돈 조반니, <라보엠> 쇼나르, <코지판 투테> 구릴엘모, <오를란도 팔라디노> 파스칼레 등 다수 오페라 출연.
- 현)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 음악 교육학부 성악 교수 재직

디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홍보담당 황재웅 악보담당 이상원 연수단원 정상미
 violin 1 정수현 김예성 장유진 이소희 장지은 violin 2 이지혜 이지애 박민서 손효진 viola 김효원 박선영 조민지
 cello 설예은 박소현 cb 김지정 서한나 Tpt 1 이해연 Tpt 2 전성화



바로크 성령 오케스트라 Orchestra Barocca Accademia dello Spirito Santo

Harpichord 니콜라 라몬 Nicola Lamon 알베르토 마론 Alberto Maron Violin I 루카 란자토(악장) Luca Ranzato
 Violin II 마테오 안델리니 Matteo Anderlini Viola 필리포 베르고 Filippo Bergo Cello 디오르다노 페고라로 Diordano Pegoraro
 Horn I 에르메스 페키니니 Ermes Pecchinini Horn II 디머 마카페리 Dimer Maccaferri Traversiere Flute 루이지 루포 Luigi Lupo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한 단무장 배은경 사무 김애지 반주 류지원 임윤지 트레이너 조소희 전재민 총무 김준년
 소프라노 안유진 서아영 이다영 정경진 알토 문은초 권민선 박지원 박수정 테너 박재민 이후영 서영덕 지현태
 베이스 정민수 문형우 김대인 전재민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Opera House

예술감독	정갑균
프로덕션PD	박형기, 강지윤, 김명진
조연출	장소희
조연출보	이아영
무대디자인	김현정
오페라코치	김진민
통역	도민영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분장디자이너	이정수
무대크루	소찬호 구민우 원현지 전진룡 이동원
조명크루	정유진 금명정 조경빈 김효진
영상크루	황혜은
의상크루	양지은 최지원
소품크루	이지윤
촬영	나무앤숲
번역	김명진

이탈리아 페라라시립오페라극장
Teatro Comunale di Ferrara, Italy

예술감독	마르첼로 코르비노 Marcello Corvino
지휘	줄리오 프란디 Giulio Prandi
연출	마르코 벨루시 Marco Bellussi
조명감독	마르코 카졸라 Marco Cazzola
무대미술감독	마테오 파올레띠 Matteo Paoletti
의상디자인	엘리사 코벨로 Elisa Cobello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주누리
공연기획팀	팀장 김민정 정유호 박형기 박선영 구다은 한규리 박새별 강지윤 김명진
교육사업팀	팀장 이호진 김유리 박지윤 최서윤 백지연 최수민 최보윤
무대예술팀	팀장 이호섭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시설관리팀	팀장 강영구 이철훈 장성훈 오준호
17기 오페라필	강서은 박현진 구다은 권승현 김경준 김소화 김유림 김지현 김채영 김채인 박소현 박지승 엄채윤 이동규 이서진 이수진 이승찬 이여진 이지현 이채원 임채희 전지민 조승아 최소은 최아은 최자현 추서연 황주연
9기 오페라팬	권혜미 김수정 문보미 박수현 박인환 배순욱 백가은 이해원 이혜인 임수진 장성민 장조휘 정연균 정유경 정은별 정지민 허진희

주최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Opera House

주관 Daegu Opera House TEATRO COMUNALE DI FERRARA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OFICE 대구현자별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구신세계

협찬 FABER-CASTELL COFFEE MYUNGGA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민간공식인증 사업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멤버십

Daegu Opera House Membership

등급안내 Grade Guide

등급	연회비	서비스 기간
베르디	50만원	입회일로부터 1년
푸치니	30만원	

등급별 혜택 Benefits of each Grade

*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Verdi

베르디

- 기획공연 VIP석 티켓 6매 제공
- 멤버십 기본 혜택(공통)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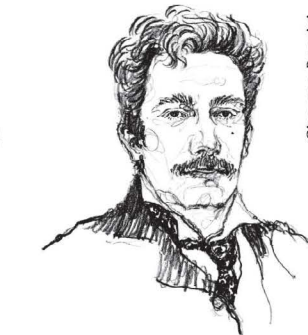


Giuseppe Verdi

Puccini

푸치니

- 기획공연 VIP석 티켓 4매 제공
- 멤버십 기본 혜택(공통) 제공



Giacomo Puccini

멤버십 가입 절차

Membership Registration Process



STEP 01

가입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내 멤버십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www.daeguoperahouse.org



STEP 02

멤버십 가입
서류확인 후 승인처리 후(7일 이내 소요예정) 가입



STEP 03

연회비 납부
멤버십 등급에 따른 연회비 납부
• 멤버십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4-10-480578-9
• 객석기부 입금계좌 : 대구은행 053-666-6000
• 예금주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STEP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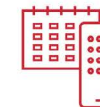
멤버십 입회 및 키트 발송
가입 후 특별한 선물과 혜택 제공

멤버십 기본 혜택 (공통)

Membership Basic Benefits



가입 기념 선물 제공
가입 기념 선물 패키지를 드립니다.



공연안내
매월 공연 일정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무료주차
공연 당일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제작

264, That One Star

Kim Sungjae 264, 그 한 개의 별

10. 18 Fri. 19:30 - 19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지휘 이동신 / 연출 표현진

투쟁 이육사 Ten. 권재희 노성훈 / 문학 남편 이육사 Bar. 김승철, 제상철 / 청년 이원록 Ten. 최요섭, 이종만

안일양 Sop. 김정아, 이윤경 / 윤세주 Ten. 김영규, S 영혼의 벗 M.Sop. 최종현, 김보라 / 고경사, 이육사 동생 Ten. 이승민

디오오스타 / 대구오페라콰이어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후원 대구신세계 | 협찬 파버카스텔, 커피명가

Stroke-lines 1401_100x73cm_2024
Nam Tchun-Mo

